

2010. 7. 19 제243호

#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세계도시동향

2010. 7. 19 제243호

## 문화 · 디자인

1.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거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영국 엑서터市)
2. 영화 분야 글로벌인재 육성사업 'Next Master Tokyo 2010' 추진 (도쿄)

## 건강 · 복지

3. 서민을 위해 3개월간 무료 스포츠활동 지원 (런던)
4. '2009~2011 아동·청소년 계획' 확대 개정 (영국 바스市)

## 행정 · 재정

5. 시장(市長)과 시민 간 온라인 토론 개최 (런던)

---

## 도시환경

6. 도시 내 농작물 재배 경진대회 개최 (런던)
7. 우천 시 하천에 오물 유입을 막는 장치 해외 보급 (도쿄)
8. 환경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합성연료로 버스 운행 (도쿄)

## 도시교통

9. 새로운 도시지하철 예산관리 프로그램 추진 (뉴욕)

## 도시계획 · 주택

10. 공업단지 재개발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뉴욕)
-

## 문 화 · 디 자 인

### 1.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거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영국 엑서터市)

○ 영국 엑서터市는 주거디자인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함. 주거디자인 가이드라인은 市 주택개발계획을 위한 주거디자인 기준 개발 시 유관 정보와 표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개발회사, 주민, 지역사회에 유익함을 강조하고 지속가능성, 거리와 공공공간 디자인, 생활편의시설, 실내공간 기준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포괄함.

· 플레밍 웨이는 가로수와 놀이터가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보수한 건물들은 장소와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냄. 웨이번 바락에서는 거리와 공공장소를 잘 조망할 수 있으며 역사적 건축물이 주변 개발지와 어우러져 장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최근에 지은 빌딩인 루이스 하우스 등은 거리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높은 수준의 건축 미관을 뽐냄.

- 주거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향후 엑서터 지역계획과 지역발전 핵심전략을 지원하는 세부계획도 포괄함. 주민과 기업인 대상 설명회와 토론회는 2010년 6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개최되며 주거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용이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됨.

(<http://apps02.exeter.gov.uk/dnRSS/ShowMediaReleases.aspx?ID=794>)

## 2. 영화 분야 글로벌인재 육성사업 ‘Next Master Tokyo 2010’ 추진 (도쿄)

○ 도쿄都는 도쿄를 거점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널리 알리려는 대책(Tokyo Culture Cre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영화 분야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에 착수함. 都는 이 중 영화 분야 재능 발굴과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Next Master Tokyo 2010’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이 사업은 영화작가를 지망하는 아시아 청년을 도쿄로 초청하여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임. 각국 참가자와 전문 영화인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도 제공함. 이 사업은 도쿄를 영화인이 모여 교류하는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참가대상은 영화를 전공하거나 특정 영화감독 밑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과거 1편 이상 단편영화를 연출한 적이 있는 청년임. 선발된 20명은 2010년 11월 20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제11회 도쿄 필름엑스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음. 도쿄 필름엑스는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제영화제임.

- 일선에서 활약하는 영화인이 참가자를 직접 지도해주는 자리가 마련되며 국제적인 영화 프로듀서와 판매 에이전트 등 영화 관계자와의 교류모임도 있을 예정임.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에는 참가자 경력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국내·외 영화 관계자에게 배포함. 항공료, 숙박료 등 프로그램 참가비는 주최 측이 부담함.

- 都는 이 사업의 시행으로 10~20년 후 차세대 영화계 거장들이 많이 배출되어 도쿄를 거점으로 활약해 줄 것으로 기대함.

([www.metro.tokyo.jp/INET/BOSHU/2010/07/22k762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0/07/22k76200.htm))

## 건 강 · 복 지

### 3. 서민을 위해 3개월간 무료 스포츠활동 지원 (런던)

○ 런던시는 서민이 3개월간 무료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십억 원을 지원하기로 함. 모든 시민이 집안에 있기보다는 활동적인 생활을 하도록 장려하고, 런던의 스포츠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역량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함임. 이를 위해 시는 2010년 여름과 2011년 중에 스포츠 프로젝트 120개에 투자할 방침임.

- 이 지원사업으로 런던시민은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테니스, 축구, 크리켓, 럭비, 수영, 농구, 무술, 배구, 권투, 댄스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음. 일반인은 물론 10대와 장애인, 노약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함. 이를 위해 시는 3000만 파운드(약 549억 원)를 청년층을 비롯해 모든 연령층의 스포츠 활동 장려, 프로그램 개발, 시설 개선과 확충, 스포츠 전문가 양성과 교육, 장애인 스포츠활동 지원 등에 사용함.

·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2012년 런던올림픽과 연계되어 있으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런던시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서민이 중심이 되고 모든 연령의 시민이 참여하는 스포츠활동 장려에 이 무료스포츠 행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 시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무료스포츠 행사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제공함.

([www.london.gov.uk/priorities/sport/funding-projects/playsport](http://www.london.gov.uk/priorities/sport/funding-projects/playsport))

#### 4. '2009~2011 아동·청소년 계획' 확대 개정 (영국 바스市)

○ 영국 바스市 아동트러스트 위원회는 아동 유관 기관(교육기관, 중·고교, 대학, 보건서비스 기관 등)을 지원하는 '2009~2011 아동·청소년 계획'을 위원회의 2년 계획으로 개정하여 확정 발표함.

- 바스市 아동트러스트 위원회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구로서 '5대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아동·청소년 계획은 아동서비스 개발과 유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 단일계획임.

· 지난 '2006~2009 아동·청소년 계획'의 주요 우선과제는 ①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 건설, ② 불우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회와 일자리 확대, ③ 학교 건물 개선, ④ 지속 가능한 성장 등임.

· '2009~2011 아동·청소년 계획' 목표는 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증진, ②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개선,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④ 지역별 교육성취도 달성 격차 줄이기, ⑤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참여 확대, ⑥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발, ⑦ 14~19세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과 조직화 등임.

- 아동트러스트 위원회는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모든 이해당사자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함. 여기서 우선과제를 조정하고 향후 과제를 발굴하며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함. 다음 '2011~2014 아동·청소년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임.

([www.bathnes.gov.uk/NR/rdonlyres](http://www.bathnes.gov.uk/NR/rdonlyres))

### 5. 시장(市長)과 시민 간 온라인 토론 개최 (런던)

- 런던시는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시정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과 온라인으로 런던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을 처음 실시함. 이 행사는 런던의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많은 시민에게 주기 위해 개최됨. 이 온라인 토론은 ‘웹방송’(Webcast)과 라디오로 동시 중계됨. 시민은 트위터 등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음.
- 시장 현안을 주제로 시민과의 토론회를 연 것은 임기 후반을 맞은 시장(市長)의 약속사항임. 수도 런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꾸어져 왔는지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한 것임. 시장은 런던이 지난 10년 전보다 더 행복한 도시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시민과의 대화에서 밝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 시장은 시청에서 현안에 대한 시민 질문을 받으면 이를 시의원과 함께 논의함. 트위터로 올라오는 질문과 의견은 행사장에 마련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나타남. 온라인 토론은 경제, 치안, 환경, 교통 분야로 나뉘어 진행됨.
- 시장은 시민과의 온라인 대화를 비롯해 매년 6번 정도 공공과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음. 런던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이벤트도 연간 4회 정도 개최함. 그동안 이러한 행사에 시민 약 9000명이 참가해 의견을 개진함.



- 市는 투명성과 신뢰도가 런던 시정을 운영하는 주요한 원칙이라고 밝히고 런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공이 볼 수 있도록 ‘런던 데이터스토어’(London Data Store)를 운영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라고 강조함. 동시에 이번 온라인 토론이 런던 시정의 양방향성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s-test-his-record-joining-first-online-state-london](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s-test-his-record-joining-first-online-state-london))

#### 공사현장 주변 미관 증진을 위해 디자인 공모 (뉴욕)

- 뉴욕市는 잦은 건축물 개·보수와 신축 공사로 도시미관이 손상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사로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Urban Canvas’라는 주제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함.
- 이 공모전은 건축물과 공공시설 개·보수, 신축 공사 현장을 미관상 보기 좋게 하고 시민 안전도 제고하는 가로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행됨.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디자인 전문가와 市 디자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됨.
- 공모전 참가자는 디자인 작품을 공사현장 펜스 설치용, 보도 설치용, 공사 중인 건축물을 가리는 용도 등으로 만들어 출품해야 함.

([www.nyc.gov/html/urbancanvas/downloads/pdf/competition\\_brief.pdf](http://www.nyc.gov/html/urbancanvas/downloads/pdf/competition_brief.pdf))

## 도 시 환 경

### 6. 도시 내 농작물 재배 경진대회 개최 (런던)

- 런던시는 도시 내 농작물 공급과 수요를 장려하기 위해 도시 농작물 재배 경진대회인 ‘캐피탈 그로스’(Capital Growth)를 실시함. 도시 내 농작물 재배지가 500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시는 런던 내 공영주택 거주자가 도시 농작물을 가장 잘 키우고 있다고 밝힘. 런던에는 공영주택이 약 75만 호 있는데 시는 이들 주택단지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이 대회는 영국 공영주택 관리기관이 거주자에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여 거주자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촉진하기 위함임. 이를 위해 ‘런던 메트로폴리탄 주택트러스트’는 런던 내에서 처음으로 주택 거주자에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 20곳을 제공함. 시는 ‘캐피탈 그로스’ 지역을 2012년까지 2012곳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움.
    - 500군데에 이르는 농작물 재배지는 학교, 옥상, 대형 화분 등 다양하게 구성됨. 런던 내 8개 지자체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 시는 농작물 재배지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재활용하고, 농작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커뮤니티 내 이웃을 서로 알아가는 사회적 공간이 되고 있다고 밝힘.
  - 농작물 재배 경진대회는 런던 내 커뮤니티가 운영하고 있는 재배지 현황 정보를 시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 우수 재배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재배

장비뿐 아니라 전문가의 경작지도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런던 중심부 공원인 리젠트 파크에 있는 농작물 재배지 3곳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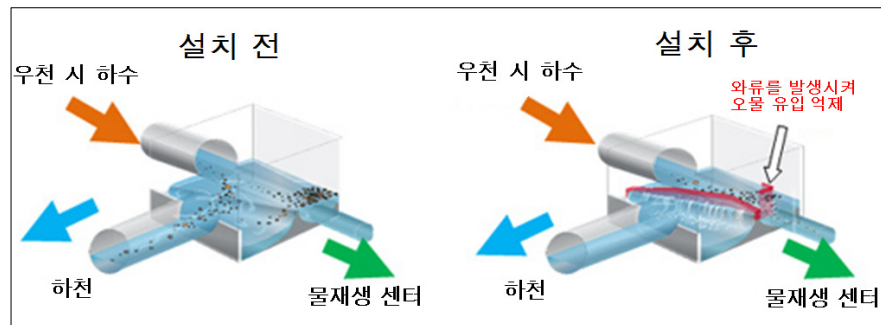
- 선정기준은 크게 ① 많은 주민들이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지, ② 재배지 조성과정에서 쓰레기를 창조적으로 재활용하여 조성했는지, ③ 커뮤니티 재배지가 공영주택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재활용과 농작물 재배,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등임.



([www.capitalgrowth.org](http://www.capitalgrowth.org))

## 7. 우천 시 하천에 오물 유입을 막는 장치 해외 보급 (도쿄)

- 도쿄都 하수도국이 개발한 ‘수면 제어장치’ 특허기술이 해외에 보급됨. 이 장치는 우천 시 합류식 하수도의 빗물 토구(우수관거)로부터 유입된 오물이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임. 하수를 모으는 차집관 전면에 설치된 제어판이 와류(渦流, 소용돌이)를 발생시켜 오물 유입을 억제하는 방식임(그림 참조). 이 방식으로 유입된 하수에 있는 오물을 70% 정도 제거할 수 있음. 설치가 용이하고 동력이 필요 없으며 보수 점검도 간단함.
- 이 제어장치는 都 하수도국이 都 하수도서비스 주식회사, 일본 공영주식회사와 공동 개발함. 都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빗물 토구(우수관거) 약 730곳 중 650곳에 설치되었으며, 나머지는 2010년 중으로 설치될 예정임. 일본 전역으로는 29개 도시 200여 곳에 설치됨.
- 2010년 6월 하수와 빗물 처리기술 개발, 설비 설계·제작·설치·보수 점검업체인 독일 스테인하트社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이 회사로부터 설비 판매액의 5%를 받는 조건임. 2010년 7월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천市에도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수면 제어장치 원리

([www.gesui.metro.tokyo.jp/oshi/inf0460.htm](http://www.gesui.metro.tokyo.jp/oshi/inf0460.htm))

## 8. 환경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합성연료로 버스 운행 (도쿄)

- 도쿄都는 환경을 배려한 자동차연료 보급 촉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뛰어난 연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팜유系 또는 폐식용유系 바이오디젤 연료를 5% 혼합한 경유인 B5, 수소화 바이오디젤 연료(BHD)를 10% 혼합한 경유, FTD 연료 등을 사용한 버스 운행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음. 최근 여기서 더 나아가 FTD 연료에 수소화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세계 최초 차세대 합성연료를 都 내에서 운행하는 FTD 전용 자동차에 시범적으로 사용하기로 함.
  - 이번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차세대 합성연료는 FTD 연료에 수소화 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한 것임. 시범사업에서는 차량 배출가스 성능과 부품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고 향후 보급 촉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파악하고자 함. 기존 디젤버스 36대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12일부터 2개월간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FTD 전용 자동차(신형 하이브리드 논스톱 버스) 2대를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시범 운행함(사진 참조).
    - FTD(Fischer-Tropsch Diesel) 연료는 피셔-트롭스 제조법으로 합성한 액체연료임.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석탄 등 다양한 원료로부터 합성이 가능하고 성질과 상태는 경유에 가까우며 발화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임. 이번에 사용된 FTD 연료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했기 때문에 GTL(Gas to Liquid)이라고도 불림.
    - 수소화 바이오디젤은 식물유나 동물유를 수소화 처리하여 합성한 액체연료이며 성질과 상태는 FTD 연료와 비슷함. 이번에 사용된 수소화 바이오디젤 연료는 식물유를 원료로 했기 때문에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또는 BHD(Bio Hydrofined Diesel)라고도 불림. 두 연료는 국토교통성의 차세대 저공해차 개발과 실용화 촉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됨.



도쿄都 교통국이 운영하는 신형 하이브리드 버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6/20k6u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6/20k6u400.htm))

#### 방학기간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료급식 제공 (뉴욕)

- 뉴욕市는 2010년 여름방학 기간(6월 29일~8월 27일) 18세 이하 市 거주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료로 아침과 점심식사를 제공함. 급식은 월~금요일 학교나 수영장, 공원, 市 주택국 건물 등 공공장소에서 제공됨. 市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市 차원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임.
- 무료급식을 받기 위한 특별한 등록절차가 없고 무료급식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지 않으며 국·공립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학생증이나 신분증만 있으면 됨. 아침식사시간은 오전 8시~9시 30분, 점심식사시간은 오전 11시~오후 1시 15분이며 집에서 가까운 급식장소를 찾아가면 됨.

([www.opt-osfns.org/osfns/](http://www.opt-osfns.org/osfns/))

### 9. 새로운 도시지하철 예산관리 프로그램 추진 (뉴욕)

- 뉴욕시는 노후한 지하철역을 개·보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도시지하철 관리시스템이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고 장기적인 도시교통시스템 발전에도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새로운 예산관리 프로그램 'Capital 2010~2014'을 시행하기로 함.
  - 도시지하철 관리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노후한 지하철 역사를 무조건 개·보수하는 방침을 없애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신기술을 적용하여 역사를 유지함. 또한 새롭게 페인트칠을 하거나 벽화를 그려 예술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함.
    - 서로 다른 종류의 기차나 지하철이 지나는 역의 경우 매표소 1곳에서 두 노선의 승차권을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함. 기존 지하철 시스템은 노선마다 다른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Metro-North역의 경우 LIRR 노선과 MNR 노선 승차권을 매표소 1곳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음.
    - 노후한 열차는 무조건 교체하지 않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리하도록 해 운영비용을 800만 달러(약 96억 원) 이상 절감함. 또한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뉴욕시 내 연결노선을 중심으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시는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출되는 대중교통 운영수익과 예산절감액을 활용하여 지하철을 500량 이상 개선하거나 교체하고 기차선로를

10km 이상 볼트형에서 용접형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교량 페인트칠하기, 친환경버스 운행 확대 등 예산을 절감하면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중교통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www.mta.info/news/pdf/cap10/exec\\_summary.pdf](http://www.mta.info/news/pdf/cap10/exec_summary.pdf))

#### 젊은 패션디자이너에게 재정·경영 노하우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 실시 (베를린)

- 베를린시가 2006년 유네스코로부터 '디자인도시'라는 칭호를 얻은 데에는 패션디자인 분야가 크게 기여함. 하지만 재정적인 지원과 경영 노하우의 부족으로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음. 시는 젊은 디자이너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월 'Start Your Fashion Business'라는 패션디자인 공모전을 신설함.

- 응모자격은 베를린의 디자인대학이나 디자인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되지 않았거나 독학한 후 베를린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임. 응모작품은 2011년 봄·여름철 컬렉션 2가지임. 선정기준은 컬렉션과 디자인상표의 잠재력, 컬렉션의 시장성과 혁신성 등임. 전문가들이 최종 후보 5명을 선발하고 이들 5명이 '베를린 패션주간'에 열린 패션쇼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함. 여기서 1~3등이 가려짐.
- 베를린 패션주간 행사는 대규모 패션산업 이벤트임. 2010년 행사는 7월 7~11일 열림. 공모전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 2만 5000유로(약 3800만원), 2등에게는 1만 5000유로(약 2300만 원), 3등에게는 1만 유로(약 1500만 원)가 수여되며 디자인 슝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지도 및 컨설팅 등의 혜택이 주어짐.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7/05/301841/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7/05/301841/index.html))



## 도시계획·주택

### 10. 공업단지 재개발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뉴욕)

- 뉴욕시는 도시기본계획인 'PlaNYC'를 추진하기 위해 도시 내 공업단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함. 이는 오염되었거나 낙후된 공업지역을 재개발하는 데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뉴욕에는 얼마 남지 않은 노후한 공업지역과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적 쇠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음. 이에 도시정부 차원에서 기존 공업지역 가운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도시환경 정비와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공업단지에 금융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시는 이 프로그램으로 공업지역 용도 변경과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입지 개발, 공원 녹지시설과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쇠퇴해가는 공업용지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프로그램을 추진함. 동시에 토지이용 효율성도 높이고 개발 이익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계획임.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약 106억 원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수년간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 인센티브는 크게 ① 설계, 환경영향 평가, 기술 지원 등 사전 사업을 위한 보조금, ② 대상지를 철거하거나 정화하는 작업을 위한 보조금, ③ 도시정부와 지역사회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연합하여 특정 개발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 등 3가지로 나뉨.

- 해당지역 사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공업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용도로 개발을 시도할 경우 소요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주민에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조치임.
- 역사적으로 미국 공업단지는 주로 州정부에서 관리해왔음. 이번 사안과 같이 도시공간 내 주요 지역 개발에 대한 결정권을 도시정부에서 행사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임.

([www.nyc.gov/html/oer/html/big/big.shtml](http://www.nyc.gov/html/oer/html/big/big.shtml))

#### 친환경적인 중온(中溫)형 아스팔트 포장 확대 추진 (뉴욕)

- 뉴욕市는 친환경적인 도로포장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중온형(Warm Mix) 아스팔트를 2곳의 도로 포장에 시범 적용함. 1곳은 한겨울, 다른 1곳은 한여름에 포장했는데 2군데 모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市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도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면 중온형 아스팔트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중온(中溫)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정도 온도를 말함.
- 기존 아스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섭씨 300~325도가 필요한 데 비해 중온형 아스팔트는 섭씨 200도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보다 더 낮은 기온에서도 작업이 가능함. 중온형 아스팔트 분야는 신산업으로 뉴욕은 이를 실용화한 선두도시 중 하나임.
- 중온형 아스팔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도로 포장 현장과 아스팔트 생산 설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매연, 냄새가 줄어들고 낮은 온도에서도 생산할 수 있어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양도 줄어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포장이 가능해져 도로를 쉽게 보수할 수 있음.

([www.nyc.gov/html/dot/html/motorist/sustainablepaving.shtml](http://www.nyc.gov/html/dot/html/motorist/sustainablepaving.shtml))